

동서양 근현대 회화작들의 예술적 대화

2025 우종미술관 소장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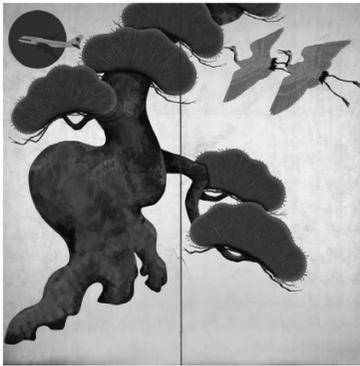
‘위안의 마음 - 자연의 숨결’ 개최 5월31일까지 우종미술관 1·2전시실 김원숙 등 국내외 작가 24인 참여 서양화·판화 등 회화 30여점 선보여 다층적 의미로 풀어낸 내면의 풍경

충격과 분노, 슬픔으로 뒤덮였던 갑진년의 끝을 뒤로 하고 위안과 평화로 가득하길 바라는 올해의 시작을 알리는 전시가 보성에서 열린다.

2025년 소장품전 ‘위안의 마음 - 자연의 숨결’이 오는 5월31일까지 보성 우종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 근현대 작가 24인이 그려낸 서양화, 현대 동양화, 판화 등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회화전이다. 근대부터 동시대에 이르는 동서양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자연의 숨결이 담긴 풍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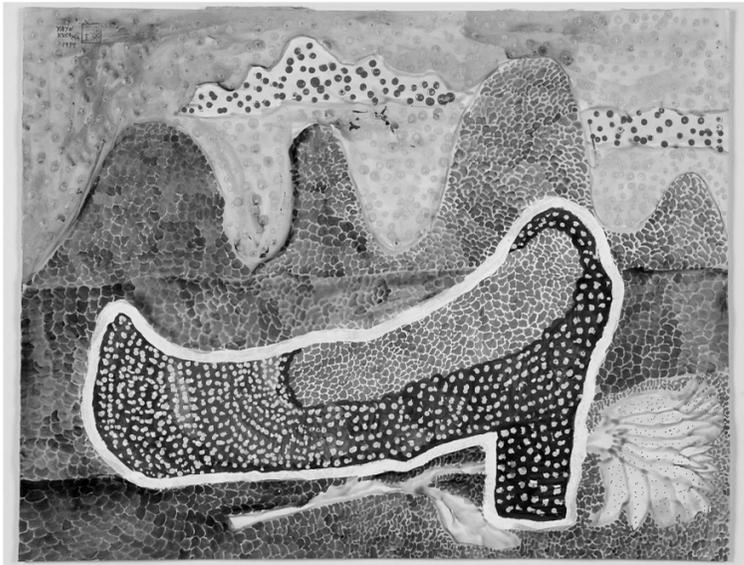
전시가 열리는 제 1·2전시실은 동서양의 조화로운 예술적 대화를 통해 전통과 현대, 현실과 상상의 다층적 예술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펼쳐진다.

먼저 1전시실은 14인의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한 서양화 작품들로 구성된 내면



타로 야마모토 작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의 풍경·초월적 상상력의 장으로서 가능하다. 김원숙(1953~), 김현아(1981~), 강종열(1956~), 백암 류병엽(1938~2013), 석은 변중하(1926~2000), 오승운(1940~2006), 이대원(1967~1986), 장육진(1917~1990), 최을가(1956~), 황영성(1941~), 쿠사마 야요이(1929~), 일본, 마르크 샤갈(1887~1985, 러시아·프랑스), 타로 야마모토(1919~1994, 일본·미국), 베르나르 뷔페(1928~1999, 프랑스) 등의 작가가 그린 서정적인 자연,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꿈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현장을 수놓는다. 2전시실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



쿠사마 야요이 작 '무제'.

우종미술관 제공

국 동양화 거장 10인의 작품이 자리한다. 의재 허백련(1891~1977), 심산 노수현(1899~1978), 남농 허건(1907~1987), 시경 박익준(1911~1993), 월정 장우성(1912~2005), 운보 김기창(1914~2001), 산정 서세옥(1929~2020), 금봉 박행보(1935~), 유산 민경갑(1933~2018), 남천 송수남(1938~2013) 등의 작가가 산수화와 풍경화를 중심으로 전통

적 기법과 현대적 실험을 조명했다. 이를 통해 전통 동양화 형식과 현대적 변용을 탐구하며 미적 진화와 철학적 깊이를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동양화의 핵심 요소인 여백, 선, 색채를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구성해 전통과 현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에서 자연의 풍경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다층적 의

미와 미학적 성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종미술관계자는 “전시된 작품들은 다층적 의미와 감정의 흐름을 조명한다”며 “관람객들은 작품을 통해 일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경험과 자연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개관한 우종미술관은 보성군 조성면에 위치해 있으며 스포츠 시설인 보성 컨트리클럽 내에 자리해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국내의 근현대 회화 작품과 고미술품 등 1800여점을 소장,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장품 전시와 중진 작가 초대기획전을 개최하고 지역의 청년 및 신진 작가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 보성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연간 지역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외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061-804-1091)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계급사회서 감춰진 존재를 사유하다... 'My JOKER'

이의선 작가 제4회 그림개인전

내년 3월11일까지 드영미술관

서양에서 유래된 카드 게임 속에는 각 계급의 상징이 들어 있다.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카드 '조커'의 특수성과 예외성을 사유해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레드기저(이의선) 작가 제4회 그림개인전 'My JOKER'가 드영미술관에서 내년 3월11일까지 개최된다.

조커(광대)는 계급사회에서 천한 신분이었지만 귀족들의 최측근으로, 실제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가가 이러한 조커의 특수성을 상상하며 그려낸 평면 작품 18점을 선보인다.

평소 긍정에너지를 그림으로 구현하는 활동을 펼쳐온 그가 독특한 소재를 가져와 주류와 비주류로 나뉜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며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시 주제를 'My JOKER'로 잡은 이유는 마음속에 자리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며 “많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조커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출신인 이 작가는 앞서 제2회



레드기저(이의선) 작 'RED-TIGER'.

드영미술관 제공

그림개인전 'ADDICTION', 제3회 그림개인전 'THE DOOR'을 모두 드영미술관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2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 전시 기간 내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을 포함해 다음달 1일과 설날 당일인 29일이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드영미술관(062-223-6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기자

계엄·탄핵 시위...외부자 시선으로 바라본 격동의 한국 사회

국제레지던시 2024 결과물 전시

내달 20일까지 '헝그리 고스트' 광주 남구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벨기에 브뤼셀에 거주하는 2명의 작가가 격동했던 대한민국의 정세를 유령과 접목해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국제레지던시 2024 결과물 전시 '헝그리 고스트'가 광주 남구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에서 다음달 20일까지 개최된다.

작가 보리스 담블리&소피 덴블리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배고픈 유령'을 의미하는 제목을 내세워 기억과 결핍에 관한 '부재'를 물질화해 풀어냈다. 지난달 중순 광주에 도착한 두 아티스트는 폭풍같이 몰아친 비상계엄과 해제, 금남로 탄핵시위, 축제같은 집회문화 등을 직관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도시 붕괴를 겪었던 당시 브뤼셀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사람들이 유령과의 대화에 개입하는 애도를 상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텍스타일 작업 '계엄: 안귀령이 잡아챌 총'과 소녀상 옆에 놓인 '빈 의자' 등 국내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에서 열고 있는 '헝그리 고스트' 전시.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제공

사회·정치적 이슈를 다룬 강렬한 작품들은 작가들이 그간 작업한 결핍과 부재를 뚫고 기억을 다뤘던 결과물들과도 맞닿아 있다.

작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가진 애도의 관행과 죽음과의 관계성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전통적인 장례식에 대한 제약은 집단적인 상실감 극복에 있어 장례식의 필수적인 역할을 부각했다”며 “이러한 혼란은 떠난 사람들의 부재에 말을 걸고, 그들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계속

거주하는지 탐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전시 현장은 과도기적 공간이 돼 부재가 구체화되고 유령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적 변화에 연루된 경계 지점이 된다.

정현주포도나무갤러리박사는 “작가들이 이방인으로서 조우하고 공감했던 광주와 한국 사회에 출몰하는 정신과 기억을 전시에 녹여냈다”며 “관람객들은 외부자가 바라본 탄핵 정국 안에서 시민들이 일구는 시대적 격변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기자

국립광주과학관, '4D영상관' 오늘 재개관

안개·물 분사 등 특수효과 6종

국립광주과학관 4D영상관이 새 단장을 완료하고 31일 재개관한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개선된 모션 시트는 기존 총 54석에서 40석으로 변경됐다. 모션 시트를 극장형 가죽

시트로 업그레이드해 관람객에게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3축 시뮬레이터 모션 시스템을 도입해 진동, 충격, 바람, 안개, 물 분사, 섬광 등 6종 이상의 특수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개인별 3단계 이상의 진동 강도 조절이 가능해 다채롭고 다이

내믹한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다.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4D영상관은 총 3개의 영상이 상영된다. 3개의 작품은 모달리의 정글 탐험을 주제로 한 '모달리: 정글어드벤처', 컴퓨터 과학자를 꿈꾸는 괴짜 사고몽치 맥스의 하루를 담은 '해피패밀리2: 넥스트 레벨', 지구 온난화를 이겨내는 삼남매의 대모험 '스툼 라이더' 등이다. 박찬기자

